

토기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부회장

다산 컨설턴트 부사장

구 분 수

제작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신 현 김동민 회장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다음 토질 및 기초 기술사회(이하 토기회)를 맡아 수고해 주실 회장님을 선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토기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큰 결심을 하신 이석영 전 회장님부터 우리 토기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드신 주재건 회장님 이후 류기정 회장님과 현 김동민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토기회는 도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토기회가 사단법인으로 다시 태어나 두 분의 회장님이 재임하시고 이제 세 번째 회장님을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토기회는 무엇인가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대 내외적으로 단단한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건설시장 상황은 우리 전 토목인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그래도 무엇인가 참여정부 때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발주될 물량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정부 내 조직의 통폐합과 국토해양부의 지방청들도 지자체로 흡수될 것이라는 계획으로 그나마 언제 발주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원자재 값이 우리 건설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미 수주해서 시행 중인 공사들도 치솟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자재비로 말미암아 숨을 헉덕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연일 계속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정 반대 촛불 집회가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의 뒷덜미를 붙잡고 미국과의 FTA와 맞물려 있는 소고기정국을 풀지 못하면 이제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퇴임도 불사할 정도로 사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술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국내 공사 대신에 외국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의 급여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질 및 기초 기술사회 회원들의 단결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사무실을 이전하느라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지난 15~6 년 전의 토기회 파일을 들춰보게 되었는데 그 때의 토기회 정기모임 기록에는 '토기회의 인원이 36회의 합류로 88명으로 성장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모임 참여인원이 23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토기회의 참석 인원의 통계가 81년부터 92년까지 매 년 기록되어 있었는데 많이 참석한 달과 적게 참석한 달의 12년간의 평균이 23%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매월 토기회 모임이 있었으므로 23%의 참석인원은 꽤 많은 수의 인원이 모임에 참석하여 토론과 대화의 장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년 이후 제일 많이 참석한 달은 95년 5월 12일 모임으로 53명의 회원이 참석하셨습니다. 토기회 인원이 130~140명밖에 되지 않는 때에 40%이상이 참석한 것입니다. 53명의 참석은 정기총회를 제외 하곤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토기회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를 생각하면 우리 토기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드신 전임 회장님들의 노고에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기반을 만들어 놓았으니 더욱 발전을 시켜야 할 단계에서 일부 열성적인 회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우리 토기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PD교육으로 인해 참여인원이 조금 많아지기는 했지만 참석인원 30~40명은 440명이란 회원 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나마 CPD 교육이 없을 때에는 5%의 회원도 모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여인원이 적다고 토론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우리에게 닥친 현안 사항들을 토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컨센서스를 형성할 때에 우리 토기회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삼겹살과 소주를 놓고 만나는 잠시의 시간이지만 진지한 대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월이면 우리가 주관하는 기술 발표회와 다음 회장님을 뽑는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토목학회, 지반공학회의 학술발표회 등에 영업을 위하여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토기회 모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토기회의 가을 기술발표회와 정기 총회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기술 발표회와 회장 선출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여를 독려하느라고 애를 태우는 일이 없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질 및 기초 기술사회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4일